

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표

기도

찬 송 복음 들고 산을 (146쪽)

말 씬 빌립보서 3:12-14

-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
-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
- 14 풋대(목표)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

마중물

이 세상에는 돕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,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도울 수 없고,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지요.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? 도대체 내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일까요?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. “그냥 무슨 일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웃과 사회를 돕는 일을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? 굳이 알아내기도 힘든 ‘나만의 독특한 역할’을 꼭 찾아야만 할까?”

여기에 대해 성경은 “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”고 말씀합니다(롬12:3).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, 즉 각 사람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지요.

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. 좋습니다. 아무 꿈도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꿈이라도 꿈을 가진 사람이 낫습니다. 어떤 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 너머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.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꿈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. 그러나 이것 역시 가장 높은 꿈은 아닙니다. 우리는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갈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낸 꿈이 아니라,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꿈이어야 합니다.

축구를 할 때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면 어떻게 될까요? 아마 공을 따라 이리저리 물려다니는 동네 축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.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구상에 따라 배정된 포지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지혜로운 설계 속에 부름 받은 독특한 역할이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.

말씀 속으로 한 걸음

- 1 바울의 목표는 누가 주신 것인가요?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갖게 됐나요?(14절)
.....
- 2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갔나요? (14절)
.....
- 3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? (14절)
.....
- 4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표를 이루어야 할까요? (12절)
.....

함께하는 기도

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를 따라 내게 나눠주신 역할이 나의 목표,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.

주기도문